

에릭 샤프,

「종교학-그 연구의 역사」

尹 以 欽, 尹 元 澈 譯

(서울: 한울, 1986)

—Eric J. Sharpe, *Comparative Religion : A History*—

이 책은 이른바 “비교종교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비교종교연구의 전통은 실로 Max Müller 이후 종교학의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므로 (옳긴 이가 제목을 고쳐서 의도하고 있는) 宗敎學史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 회합적 유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첫 章을 시작하고 있지만 종교학의 태동기인 1860~1870년대부터 제 12차 국제종교사학회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IAHR] at Stockholm)가 열렸던 1970년까지를 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좀 오래된 G. Mensching의 *Geschichte Religionswissenschaft* 이후, J. de Vries의 *The Study of Religion*과 J. J. Waar-

denburg의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등이 주로 종교학사의 표준적인 교과서들로 생각되어 왔었는데, 1970년 후반부터 E. J. Sharpe의 책은 좀더 최근 자료들을 담고 있고 또 기존자료들을 오늘날 종교학도들에게 더 적절히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온 셈이다. 특히 Sharpe 자신이 Manchester 대학과 Lancaster 대학에서 강의하던 강의노트를 발전시켜서 낸 책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을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이나 대학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책이다.

총 12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교기원은쟁에 참여했던 종교학의 개척자들이 중심이 된 전반부는 Max Müller 이후 Tylor, Marett, Lang, Schmidt, Frazer 등의 초기 인류학적 연구들과 Durkheim 등의 초기 사회학적 연구 및 James 등의 심리학적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반부는 독특한 시도로서 대학에 있어서 비교종교연구의 초기성립과정과 기독교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의 공헌 그리고 종교학에서 좀처럼 그 계보를 체계화하기가 어려운 문화·역사적 관점에

서의 두드러진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후반부는 심층심리학적 연구와 종교현상학 그리고 종교간 대화의 추이와 최근 종교학 방법론에 관련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Sharpe 가 記術하고 있는 방식은 주로 중요 인물들과 그들의 저술을 개괄하는 것이다. 그의 개괄방식은 대체로 치우침이 없이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짧게 짧게 논의되지만 핵심들을 잘 집어내고 적절한 인용문들을 골라내고 있다. 또 사항들의 비중들을 고려하여 대개 알맞는 곳에 알맞게 할당하여 배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종교학사를 만들어 낸 셈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냈는지 참 감탄스럽고, 특히 스칸디나비아어로 된 원전들까지도 직접 읽어낸 그의 능력은 주목할만 하다.

잘못 기술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있어도 사소하다.(예컨대, Eliade 가 인도에 머물었던 것은 4 년이 아니라 3 년이고, 그가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로 된 것은 1957 년이 아니라 1962 년부터 이다. p.264)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종교철학과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이 너무 소홀히 취급된 느낌이다. 적어도 이들이 독립된 章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세속학문에서 전개된 종교연구에만 집중한 듯하다. 각 종교 전통에서 시도된 종교학적 공헌들이 더 폭넓게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종교학자체를 너무 '작은 학문'으로 그려내고 있다. 중요 인물들은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G. Dumezil 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인물들간의 연결이 간혹 잘못된 듯한 인상도 준다. (예컨대, Eliade 를 심층심리학에서 Jung 과 연관시켜 논의한 것은 Eliade 의 후기저술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부당하다. 그보다는 종교현상학에 대한 그의 공헌을 클로즈업시켰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물 중심이 되다보니 종교학의 주변맥락에 관한 사상사적이거나 지성사적인 통찰력이 부족한 듯하다. Marx도 언급없이, 불쑥나온 Weber 의 종교연구는 독자들을 당혹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 무엇보다도 Sharpe 자신이 종교학사에 관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학문적 초연함과 실존적 참여 양자사이에서 절충을 논하지만, 오직 전자에만 치중한 느낌이다. 또 다양한 종교학 방법론의 가능성을 암시

하고 있지만 그 여러 방법론들의 상호 관련가능성은 추구되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종교학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독자들에게 철저히 맡겨지고 있다. 결국 아무 주장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주장이 없으니까 비판의 여지는 없지만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메시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종교학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줄 위험은 분명히 없다.

역자는 번역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있다. “종교학,” “비교종교학,” 및 “종교사” 등의 용어가 간혹 혼동된 경우들도 있지만 원전의 의미가 크게 잘못 옮겨진 곳은 거의 없다.

(金鍾瑞,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루돌프 오토,

「聖스러움의 意味」

吉 熙 星 譯

(서울 : 분도출판사, 1987)

— Rudolf, Otto, *Das Heilige* —

교회성교수의 본 역서는 우리나라 종교학계의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종교학의 뿌리가 확고히 내려지려면 종교학의 고전을 좀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종교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서적”(Whaling: 301)을 쉽게 대할 수 있게 해 준 역자와, 그리고 종교학총서를 발간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의 제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뿐이다.

잔소리 같지만 서평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좀더 아카데믹한 것으로서, 최근에 발행된 어떤 서적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그것이 학계의 현재 상황에 기여하는 바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단순히 특정 서적이 최근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때 서평의 대상이 되는 서적이 저서인 경우에는 전자의 목적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번역서인 경우에는 당연히 후자의 목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필자가 알기에 다른나라의 학술지에 실리는 서평은 대부분이 저서에 관한 것이며 번